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가?

— 고린토전서 6장 1-11절

안병무

1. 자기상실

이 주제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받는 질문 그대로입니다. 교회에 적(籍)을 두고, 주일마다 한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박제된 듯한 신앙고백을 자신없이 함께 외웁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일주일 내내 나는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진급과 월급 올라갈 것에 신경을 쓰면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투닥거리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을 하거나 TV를 들여다 보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회사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대포집 같은 곳에 들러서 남이 하듯이 술잔도 기울이고, 시정(市井)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지껄이며 말다툼도 하다가 녹초가 된 채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다 못해 역정을 내기도 하다가 잡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오래 전부터 집사인 탓에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나가 헌금도 거두고, 새로 온 사람들에게 백화점의 여사원 같은 인사를 하는 등 마음에 없는 웃음을 짓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또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할 틈도 없이 돈을 쪼개 쓰고, TV에서 보는 생활을 부러워하다가 스트레스만 안은 채 잠드는 이상 아무 것도 다른 점이 없고,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모자란다고 계모임도 하고, 돈푼이라도 생길 일에 분주할 뿐이라고 푸념이니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무어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앙, 나아가서는 종교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이 뚜렷했거나, 또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모든 삶을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소위 성속(聖俗)의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는 일과 ‘시민이 된다’는 것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전에는 교리나 제도로써 일사불란하고 신성불가침의 종교적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제정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모습이 형성되었으며, 자기 삶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종교 왕국은 없습니다. 즉 구심적 모체는 없고 각 사람에게 판단의 권리가 이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변동에서 온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에는 신앙(종교)가 그 침단에 선 피라밋과도 같은 가치관을 형성했으나, 오늘은 그 침단의 자리에 과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학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통일적인 가치관을 책임질 권위의 소재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일원적인 세계상을 보였으나 오늘은 다원적인 세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종교도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 중의 하나일 뿐,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아

니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가치 기준이 확실해서 흑백(黑白)의 차가 분명했으나 지금은 흑과 백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선(善)과 악(惡), 의(義)와 불의(不義), 이러한 구분을 하기 위한 뚜렷한 기준은 적어도 팻말에 써 붙이듯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기준이 크게 문제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간단히 식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느냐” “술, 담배를 안 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등등의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오늘에는 그런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지, 심하게는 무신론의 영역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유신론의 그늘 밑에 반(反)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얼른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바울로가 특수한 경우에 한 말 중에서 한 단면을 배우려고 합니다.

1) 이 바울로의 말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토 교회’에 한 말입니다. ‘고린토’는 로마 제국의 점령 아래 있던 희랍적인 문명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이 도시를 정복했지만, 희랍의 사고나 삶의 철학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했던 희랍 철학은 에피큐리안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은 쾌락주의적 행복의 추구를 지상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전당(殿堂)을 꾸미기 위한 것이었고, 일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일하고, 철학은 진리 탐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美)를 감상

하기 위한 도구이며,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 쾌락의 보장을 위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2) 고린토 교회와 당면 문제들: 고린토시(市)에는 아프로 다일 신전(神殿)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세워졌던 이유는 쾌락하는 인간을 질투할지 모를 신들에게 ‘뇌물’을 바쳐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한때 1000명이 넘는 미녀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했는데, 저들은 순례자에게 쾌락의 대상도 되고 신도 무마하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종교적 창기들이었다. 따라서 그 제사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제신들 앞에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즐깁니다. 그것은 극장에 모인 군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즐거움’이 직접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태도는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재판 그것은 하나의 관극(觀劇)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사적재판(私的裁判)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대표를 내고 중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거리에서 진행하므로 관객을 많이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볼거리’입니다. 이러한 간소한 재판에서 판결이 안 나오면 배심원을 관객들 가운데에서 뽑습니다. 20, 40, 100, 1000 나아가서는 6000명까지 동원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裁判場)은 아마도 서울운동장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헬레니즘문화가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그리스도가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패상만큼이나 속속들이 침투해 있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가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문제와 같습니다.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센 물결 속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 길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부류들은 “이방문화와 이에 때문은 자들을 절대로 상대하지도 말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류는 일체 저들과의 관계를 끊고 금욕적이며, 율법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류들은 “저들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적당히 어울려 살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 자들은 바로 둘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간에 서로 이해관계에서 대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당시의 쾌락적인 관극과도 같은 재판석에 자기들의 문제를 내맡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몰라도 하여간 이로 인해 ‘고린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조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문제를 관극적인 재판에 맡겨야 합니까?

이에 비해서 유다 민족에게는 정반대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정치범 이외의 문제(민사)는 끝끝내 자체 안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해서 그 권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선민사상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경우를 알고 있던 바울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라고 합니다. 자질구레한 문제를 자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극장과 같이 알고 모이는 관객들에게 시비를 가

려주기를 기다리는 ‘고린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바울로는 재판을 구경거리로 한 세상을 ‘불의한 것들’(adikon)이라고 단정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을 ‘성도’(Hagioi)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란 그러므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로 봅니다. 이런 사고는 이스라엘민의 자의식에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의 선민사상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인’으로 스스로들을 지키고 살게 하지만, 죽고 망하게도 한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들을 어떤 굴욕적 역사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한 것이 이 인식임과 동시에 이 인식이야말로 주변 민족과 적대화되게 하고 고립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과는 달리 이 민족의 타락상에 분노한 예언자들이 여러 차례 그런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세계 구원은 ‘구별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민 모두가 선민이 아니라 아직 오염되지 않은 ‘구별된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바울로는 이스라엘의 이 선민권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승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본문 11절; 로마 9,6-8). 그리고 아마도 그런 신념을 또 한번 강화한 것은 그가 바리사이파에 소속되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사이’란 말 자체가 ‘선별되었다’는 말로서 그것이 바리사이파의 공죄(公罪)에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의식의 극치로서 교만과 동시에 책임의식을 낳게 했습니다. 바울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할 때는 이같은 사상의 맥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 의식이 불학무식(不學無識)하고 천한 민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승됐다고 확신하는 바울로는 확실히 역사의 주체를 뒤집어 보게 된 것입니다.

1) '민중'인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구별된 것은 동시에 특권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예속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로가 '선별'을 강조한 것이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성속(聖俗)의 구별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것에 무관심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아는 금욕적 고립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탈세계(脫世界)를 말하지 않았고, 비세계화(非世界化)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욕심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고 뚜렷하게 그런 오해에 썩기를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안의 존재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약탈하는 폭력배, 부유(富裕)가 지나쳐 향락에 빠져 변태성욕자가 우글거리고, '보다 더'라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사람까지도 돈버는 상품으로 보며,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 권력이나 재력 따위를 절대화함으로 우상화하여 무릎을 꿇는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은 결국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로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희랍적으로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발전하여 역사의 저 끝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어지리라는 낙

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썩어가는 무정란(無情卵)과도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까?

3. 세계 심판자

바울로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6, 2) 아니!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리라!” (6, 3)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본문 위에서 (5, 13)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심판’이란 언어가 원문에서도 꼭 같습니다 (6, 2; 6, 3 비교 5, 13). 이로써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바울로의 인식의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 내맡겨 버리고, 자기를 객체화시키는 수동적인 자세를 완전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계심판의 주체라는 확신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알면서도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그의 회심의 동기와 맥을 같이합니다. 기충민중이 중심을 이룬 예수공동체가 세계 안의 하느님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세상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을 둘러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중간자도 없다는 선언이 됩니다. 군주적 권력 따위는 물론 교권 따위도 중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1) 이런 선언 속에는 로마 권력(법에 의한)과 유다교의 교권을 안중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권력은 인간의 시비를 재

판하고 선악을 평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아니! 생사권까지도 그 손에 장악하고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유다교는 성서의 해석권을 장악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런 현장을 아직 자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의 시비를 자진해서 세계의 체제가 인정하는 재판 현장에 끌고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로는 그런 행위 자체가 벌써 세상에 백기(白旗)를 들고 항복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마당에 이기고 지는 것이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법의 제재(制裁) 밖에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피안(彼岸)에서 산다는 뜻인가?

우리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제재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법 따위가 간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주체적으로 법의 제재를 앞질러 산다는 말입니다. 제도적 범정보다 차원높은 것이 양심입니다. 이 말은 “양심껏 사는 사람에게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이 말은 소극적인 자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바울로는 법 그리고 양심마저도 심판할 주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2)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받습니다. 바울로도 법의 제재를 받아 처벌받고 투옥까지 되었습니다. 한걸음 나아가서 그는 총독들의 재판에 불복하고 로마의 카이저의 법정에서 판결받겠다고 고집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법체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법체제에서 시비를 가려주기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법과 그리고 법을 등에 업고 불의를 행하는 집행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처럼 로마법정에서 심판받음으로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전해진 한 장면(16,16-40)은 바울로다운 일면을 보여줍니다. 로마 치안관이 바울로와 실라를 치안소요혐의로 옥에 가두었다가 법에 걸 수 없어 그를 놓아주라고 간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바울로는 “재판도 하지 않고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석방하려 하오”라고 하며 치안관이 직접 와서 사죄하기 전에는 출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항복을 받고 풀려납니다(사도 15,35이하). 법다운 법도 아닌데 그것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권만 유린하는 치안관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고고한 자의식은 엘리트 의식도 아니요, 이스라엘민의 선민의식도 아닙니다. 이미 식민지인으로 길든 마당에 그런 민족의식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세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의식입니다.

4. 끝말

이같은 그리스도인 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이 시대의 ‘의인’일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중의 1/10만 이런 의식에 확고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의식이 우리의 민(民)의 의식으로 보편화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복잡한 제도는 아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